

교사 양성 대학의 재구조화

이 병 진 |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21세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설레임과 두려움과 긴박함으로 21세기를 맞이했다. 과거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변화는 그리 큰 의미를 지녀야 할만큼 시간적·공간적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생각되는 것은 21세기가 갖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성과 속도 때문일 거라고 본다. 현대 사회는 변화의 가속화와 시공의 축약, 문화적 다양성, 기술의 복잡화, 과학의 불확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인터넷 문화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들이 소화하기도 전에 쏟아놓는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 학교 문화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강의실의 분필은 더 이상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 자리는 최첨단 과학기자재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는 학생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 사이버 대학은 대학이라고 하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한다. 학교의 경직성과 불투명성의 포기를 요구하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학교의 변화는 필연적이

며 모든 변화는 선택을 포함한 것이다.

바야흐로 대변혁의 시대, 고도의 정보화 시대가 우리의 대학에 구조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그 시대를 이끄는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은 지난날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던 대학의 역할에서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지식의 창출을 주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학들은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역할에서 교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은 이러한 선도적 문화의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지식의 발달을 주도해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교육은 지식과 사회적 가치의 보존과 변화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학들도 이미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에 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구조 조정을 하고,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은 BK21 사업, 학부제 도입 등 정부 주도의 외부 통제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끌어 가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운 면도 있다.

이미 선진국의 대학들은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체 갱신 전략에 의해 지난날의 점진적인 사회 변화와 안정성, 확실성, 단순성, 독재성, 분리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불확실성, 복잡성, 융통성, 자율성, 통합성 등의 특징을 지닌 인간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해가면서 엄청난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해 가고 있다.

우리의 대학들이 정부의 당근과 채찍에만 의존하여 외형적 조직 변화만을 추구해 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시대 변혁에 걸맞은 대학의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은 끝만 그럴싸한 속빈 강정의 모습을 드러낼 위험마저 있는 것이다.

종래의 상아탑적 대학 교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은 학생들과 사회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부도 현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이 교육의 시장 개념이나 학생 고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아탑적 대학철학으로서 대학의 질적 경쟁을 통한 생존 전략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탓이다. 이제 우리의 대학들도 외부 통제 관리에 의존하는 기계론적인 패러다임에서 자체 갱신 전략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의식 전환과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새시대에 맞고 새로운 대학문화에 적합한 대학관을 갖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이제 대학의 재구조화는 필수적이다. 원격 대학, 사이버 대학, 다국적 대학 등의 개념은 기존의 대학철학과 경영으로는 한계적인 요소들이다. 이들과 공존 체재를 수립하면서 경쟁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존립의 위협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들이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

라 교육대학·사범대학 통폐합, 복수전공제 실시, 학부제 모집, 교육실습 강화 등에 관한 정책적 시도와 논의를 활발히 하고, 단편적인 기준의 평가 척도에 의한 대학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막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외형적 걸치레에 급급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이렇게 해서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을 이끌 신지식인 교사 양성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교육개혁 작업이 본격화 된 지 5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고, 7차 교육과정 실시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우리의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대학의 변화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교사양성 프로그램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으며 교수·학습 방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현장교육과 연계된 교육은 효과적인가. 현장교육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얼마나 확보하여 교육적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이보다 앞서 변해야 할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의 의식은 또 어떠한가. 21세기 교육을 선도해 갈 교사양성을 위해 학문과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가.’

여기서 늦었지만 서둘러서 교사양성 대학으로서의 재구조화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자체 갱신 전략에 의하여 이루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구조화란 기존의 구조를 자율성, 창의성, 융통성, 협동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재구성 작업을 의미한다. 관주도의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현장경영 중심, 권한의 위임, 단위조직 수준의 자율성 확보, 교육프로그램 개혁, 환경 창조, 단위조직 등의 융통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개발 강화, 타기관과의 상호협동체제 노력 등은 재구조화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자체 갱신 전략이란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변화에 대한 강렬한 요구에 의해 변화를 위한 정보를 모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그 대안들을 평가한 후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이를 실험적으로 수행하며 계속 발전시켜가는 자율적 노력을 의미한다. 자체 갱신 전략을 통한 교사양성 대학으로의 재구조화는 한국적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시도하며, 현장교육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구와 현장의 실천이 통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양성 기관과 학교의 원격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사양성 기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 질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교육을 선도해 갈 교사양성을 위해 학문과 지식에 대한 다학문적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 없이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실체적이고 효율적인 질 높은 신지식인 교사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교사는 학교가 지식의 수련장에서 지식 탐구의 장(場), 지식 창출의 장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학문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정보 제공자의 위치에서 학생들의 지식 작업을 돕는 조정자나 지도자(leader)의 역할을 해야 한다. 레지크와 스완슨(Razik & Swanson, 1995)은 교육체제의 재구조화와 새로운 체제에 적합한 행동 방식, 유연성(flexibility)과 질(quality)을 추구하는 사회의 요구 충족 등을 21세기 교육 지도자가 지녀야 할 소양으로 본다. 이는 바로 교사양성 대학에서 양성해야 하는 미래의 교사상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교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재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인 것이다.

교사의 재구조화 능력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 자기통제력, 자기 의존성을 키워주고, 자기 경영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학생을 위한 최선의 교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기반해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교육

은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을 육성하여 사회 진보의 질과 수월성을 높이는 것이다.

교사양성 대학들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따라서 교사양성 대학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재구조화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대변력을 가져와야 한다. 특히 현행 프로그램, 즉 자격검정령의 틀에 얽매인 교직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양과목, 교육실습으로 대변되는 소기의 학점이수에 그치는 정태적(情態的) 프로그램을 과감히 벗어나 학생들을 전인격적·창의적 인간으로 이끌 수 있는 복합적 역량을 갖춘 수 있는 동태적(動態的)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에 입각한 강좌만을 교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할 창조적 교사양성을 위해 그 자신이 신지식인 교수로서 그 강좌 과목과 내용의 변화를 용기있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교사양성 대학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때 미래의 교사들은 그들의 의식으로 자기 갱신 전략을 체험할 것이다. 이는 미래 우리 교육의 재구조화를 자연스럽게 이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인프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양성 대학의 재구조화 그것은 분명히 21세기를 이끄는 교사의 선진화를 이룩해 갈 인재 양성의 기반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교사양성 대학의 신대학문화일 것이다. **□**

이병진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그동안 제 1대학장, 학생처장, 교육학계열 수석교수, 교육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비교교육학회 회장, 2001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세계 비교교육학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육학총론」, 「현장교사론」 등이 있다.